

질문에 답하면, 한 편의 글이 됩니다.



20년 넘게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썼습니다. 방송작가의 일은 취재입니다.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묻고, 그 사람이 한 말을 받아 적고, 그걸 한 편의 원고로 구성하는 일. 매주 방송이 나가야 하니 매주 누군가를 만나 물었습니다. 몇 명이었는지는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.

그분들 대부분은 “저는 말주변이 없어요”라는 말부터 꺼냈습니다. 그런데 질문을 몇 개 받고 나면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. 글도 같습니다. 쓸 것이 없는 게 아니라, 아직 아무도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.

제가 하는 일은 그 질문을 대신 던지는 것입니다.

주요 이력

경력	시사교양 방송작가 20년 이상 · 여행 콘텐츠 집필
소속	한국방송작가협회 정회원 · 한국독서치료학회 정회원
수료	한국방송작가협회교육원 드라마작가 연수반 · 전문반
기획	정부부처 대변인실 · 공공기관 홍보 콘텐츠 기획
협업	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· 부스 기획과 글쓰기 강의
운영	WeRoute 글쓰기 · 출간 프로그램 운영
수상	2025 마포구 출산장려 슬로건 최우수 · 2015 소월백일장 시 부문 준장원

기관 · 기업 강의 분야

- | | |
|--|---|
| 01 공공 · 기관 글쓰기
보도자료 · 홍보 콘텐츠 · 사업계획서, 정부부처 대변인실 기획 경험을 실무 기준으로 옮깁니다. | 02 인터뷰 · 스토리텔링 글쓰기
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이야기가 나오는지, 방송 취재의 질문법을 그대로 다룹니다. |
| 03 AI 활용 글쓰기
AI에게 무엇을 물어야 쓸 만한 재료가 나오는지, 그 재료를 어디서부터 손봐야 하는지. | 04 생성형 AI 실무 · 프롬프트
설치와 기본 사용법부터 시작합니다. 처음 쓰는 분을 전제로 구성합니다. |

현장 프로젝트

‘오늘, 나에게 편지 쓰다’ 2025 ·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

길에 책상을 펴고 물었습니다. 지금,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? 백 명 남짓이 자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엽서에 적었고, 100일이 지난 날 그 엽서를 부쳤습니다. 봉한 채로 맡아두었기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.

01 질문을 활용한 인터뷰 에세이

제가 묻고 참여자가 답합니다. 그 답을 스스로 적으면 그것이 초고가 됩니다.

02 마음돌봄 글쓰기

책 한 권을 같이 읽고, 그 책이 내 마음속 어떤 것을 건드렸는지 이야기를 나눈 뒤 그 생각을 글로 옮깁니다.

03 전자책 기획 · 집필 · 출간

목차를 짜고 분량을 나누고 마감을 정합니다. 원고가 실제로 서점에 올라가는 지점까지.

04 AI로 글감 찾고 초고 쓰기

빈 화면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. 설치와 기본 사용법부터 함께 합니다.

05 AI 동화책 기획 · 제작

이야기 구조를 먼저 잡고 그림은 AI로 만듭니다. 표지까지 나오면 한 권이 됩니다.

진행 형태

1:1 개별

일정과 속도를 각자에게 맞춥니다.
원고를 주고받으며 진행합니다.

소규모 그룹

같은 질문을 받고 각자 씁니다. 그
자리에서 읽고 그 자리에서 들립니다.

기업 · 기관

임직원 대상 워크숍, 홍보 콘텐츠 기획
교육. 대면 · 온라인 · 하이브리드 모두
가능합니다.

저서 · 집필

단행본

방송작가는 바로 ‘글 써보세요’라고 말하지 않는다

출간 예정

질문에 답하다 보면 한 편이 완성되는 인터뷰 에세이 글쓰기 안내서

에세이

그러니까 나는 여행중이었다

20대의 여행을 다시 꺼내 40대의 나를 되찾는 기록

단독 집필

STORY M · 상하이 편

상하이 편 글과 사진 원고 전체 집필

그 외

1박 2일 가족여행 시티투어

공동 집필 · 모두투어 여행매거진 객원기자 · iMBC 「엄작의 사적인 방송」 연재

강의 의뢰 · 출강 문의

helloweroute@gmail.com · 카카오톡 weroute

질문에 답하면,
한 편의 글이 됩니다.